



*Maayong Pasko  
Mabungahong Bag-ong Tuig kaninyong tanan!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지난 11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사모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마띠 지역의 교도소 사역과 학원 사역뿐만 아니라 해변 교회를 포함한 어린이 구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무엇 보다도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저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급해 졌습니다. 12월 성탄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교도소 재소자, 마띠 학교 학생, 마띠 와 해변 교회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전해 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하여 크고 작은 악기들이 꼭 필요한 순간에 절제된 소리를 내는 원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과 어찌 그리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이곳에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수고는 이곳에서 사역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로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연결 시켜 주셔서, 도리어 저희가 큰 은혜를 받으며 순적하게 성경을 준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종들을 힘써 동참하게 하여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띠 교회 전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마띠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출발하기 전부터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희가 감당하는 사역 자체 보다, 마띠 지역으로 이동하는 3시간 가량의 시간이 너무나 크고 어렵게 보여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낮이 익은 마띠 지역으로 들어 서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린 몸과는 달리 온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해 집니다. 흥물스럽게 보였던 교도소가 이제는 너무도 반가운 이웃이 되어서 마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마침내 기도하면서 마띠 교회 청년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교도소를 방문 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교도소 내부 규정으로 인하여 모든 수감자들은 2중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약 50여 미터의 간격을 두고 서로 쇠창살을 마주하며 스피커를 통하여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아주 부자연스럽지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띠 교회 목사님이 비록 쇠창살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수감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수감자들 모두가 시종일관 예배에 진지하게 집중하고, 아멘으로 반응을 하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도소의 규정에 의하면 수감자들에게 물품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검색 절차를 마친 다음에 교도소 관리자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전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중으로 분리된 교도소 내부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수감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교도소 관리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들에게만은 첫번째 쇠 창살문을 열어 주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성경을 150여명의 수감자들에게 직접 전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수감자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권, 한권 나누어 줄때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띠 교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격실에 있는 수감자 중의 한 사람이 마띠 교회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하여 매주 마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렵듯이 들어 왔고, 또한 교도소 벽돌 틈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서 꿈만 같다고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소자의 반응과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대해 마띠 교회 목사님이 도리어 더 크게 감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마띠 교회 사모님은 결혼 전부터 신학교에 다니면서 타 지역의 교도소 사역을 위하여 오랜동안 헌신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목사님과 결혼을 한 이후에 교도소를 이웃으로 하고 있는 마띠 교회에 부임을 했으면서도 미처 교도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고 회개와 함께 감사해 합니다.



수감자들에게 성경을 전하며



수감자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2중문을 들어서서 마띠 교우들

역시나 마띠 교도소는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상상 속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격실안에서 10 - 15명의 수감자들이 서로 영겨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제공하는 식사외에는 모든 물품을 가족들의 면회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합니다. 바깥 세상의 일반 사람들의 생활 형편도 초라한데, 생필품을 제때 조달할 수 없는 이들의 생활 형편은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감자중의 몇몇은


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나마 격실 내에도 수감되지 못하고, 환부를 드러내고 창살 밖에서 격리되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모습도 모습이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격실 전체에서 뿜어 나오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정신이 혼미해 질 정도입니다. 한사람씩 악수를 하며 성경을 전해 줄 때에, 수감자 중의 한 사람이 저에게 작은 종이에 뽁뽁하게 글을 써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에에는 '찾아 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수감자들과 저희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는 비누, 치약, 세제, 약품, 간장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하여 가슴이 저러 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곳에 있는 재소자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 올 때까지, 부족한 저희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랑의 수고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1~3)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금년 새롭게 설립된 마띠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를 따라 전통 카톨릭 환경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 마띠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이고, 또한 교장 선생님은 전통 카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하셨다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이, 모든 선생님과 350여명의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띠 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과 함께 율동도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고등 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밝고도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감사하게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지 일깨워 주고, 또한 죄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5 박스의 성경을 들고 방문 하였습니다. 교과서 뿐만 아니라



마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책 자체가 귀한 이곳에서 자신만의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기쁨임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어로 된 성경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표준어와 영어로 된 성경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권, 한 권 나누어 줄 때에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모습에 그동안 성경을 어렵게 준비한 과정들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모두 나누어 준 이후에 학생들과 선생님을 대표하여 교장 선생님께서 몇번이나 감사의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도리어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 졌으니 우리 주님의 때에 모두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 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별도의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의 천장과 바닥 공사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c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이후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추가 공정이 중단 되었고, 교실 벽과 각종 필요한 집기들은 언제 보충이 될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임시로 교실과 교실을 나무 합판으로 구분하고, 합판 위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여 칠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새로 제작한 책걸상 400여개도 학교의 벽은 물론 교실 벽도 없는 까닭에 계속해서 도난이 발생하여 전전공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350여명의 학생이 출석하고 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아직도 근방의 많은 아이들이 출석을 못하고 있고, 그나마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마저도 출석이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과학 실험 기자재, 컴퓨터, 도서실등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교과서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학교로서의 역할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현지어 성경을 받은 마띠 고등학교 학생들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부족한 것 때문에 저들이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학생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 주실지 저도 참으로 궁금하지만, 350여명의 귀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총 동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다 (시 123:1,2)

이 척박한 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지 날마다 체험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 어린 후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 기도 요청

- 12월 성탄절을 맞이하여 해변교회 150여명의 어린이들이 마을 공터에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마을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와 발표회를 준비 중입니다. **말씀, 찬양, 연극, 간식, 선물등 다양한 내용으로 공중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귀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마띠 사역을 위하여 이동하는 장시간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